

중동사태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

2026. 5.



〈조사개요〉

1. 조사명

- 중동사태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

2. 조사목적

- 중동사태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영향 파악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

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수출기업 500개사

4. 조사방법

- 조사표 기반 설문(자기 기입식)

5. 조사내용

- 기업 일반 및 수출입 관련 현황
-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 영향
- 정부 및 부산시에 대한 요구 지원책

6. 조사기간

- 2026. 4. 13. ~ 5. 8.

1 부산지역 수출 현황

가. 주요 수출지역

- 단일국으로는 미국, 대륙권으로는 아시아권이 부산지역 주요 수출지역
 - 부산지역 기업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이 18.3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. 이어 ‘중국’(13.8%), ‘일본’(8.1%), ‘베트남’(6.9%), ‘멕시코’(4.5%), ‘싱가포르’(3.1%) 등으로 나타남
 - 대륙권으로는 아시아가 46.9%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‘북미’(20.0%), ‘유럽’(14.9%), ‘중남미’(8.4%), ‘중동’(5.6%) 등으로 부산지역에서 중동으로 직접수출하는 비중은 타권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
 - 중동사태로 인한 수출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거나, 유가 및 물류비 상승 등 간접 영향이 지역 내 광범위하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

<부산지역 주요 수출국 및 중동지역 수출 비중>

(단위: 1,000\$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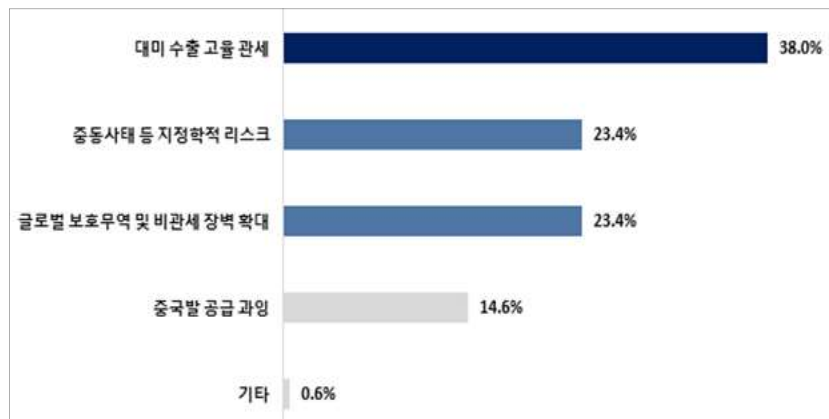
순위	국가명	수출금액	비중
1	미국	2,603,905	18.3%
2	중국	1,959,178	13.8%
3	일본	1,151,571	8.1%
4	베트남	976,786	6.9%
5	멕시코	643,404	4.5%
	중동지역	790,747	5.6%
	수출총액	14,227,941	

※출처: 한국무역협회

나. 지역 수출기업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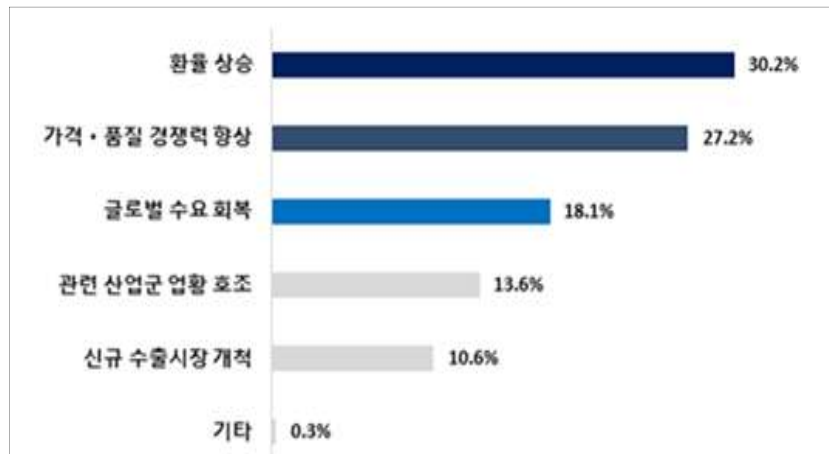
- 지역 수출기업이 꼽은 주요 위기요인으로는 ‘대미 수출 고율관세’ (38.0%)와 ‘글로벌 보호무역 및 비관세 장벽 확대’(23.4%)를 꼽음
 - 이외에도 ‘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’(23.4%), ‘중국발 공급 과잉’ (14.6%) 등의 순으로 집계
 - 특히, 중동사태보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더 큰 수출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데, 이는 지역 수출기업들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것 때문으로 분석됨

〈지역 수출기업 위기요인〉



- 대내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, 응답기업들은 ‘환율 상승’(30.2%)과 ‘가격·품질 경쟁력 향상’(27.2%)을 기회요인으로 꼽음
 - 이외에도 ‘글로벌 수요 회복’(18.1%), ‘관련 산업군 업황 호조’ (13.6%), ‘신규 수출시장 개척’(10.6%) 등의 순으로 집계
 - 이는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과 수익성 확대가 단기적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됨
 - 이외에도, 일부 기업에서는 AX·DX, 품질향상 등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장기적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며 수출 기회요인으로 꼽음

<지역 수출기업 기회요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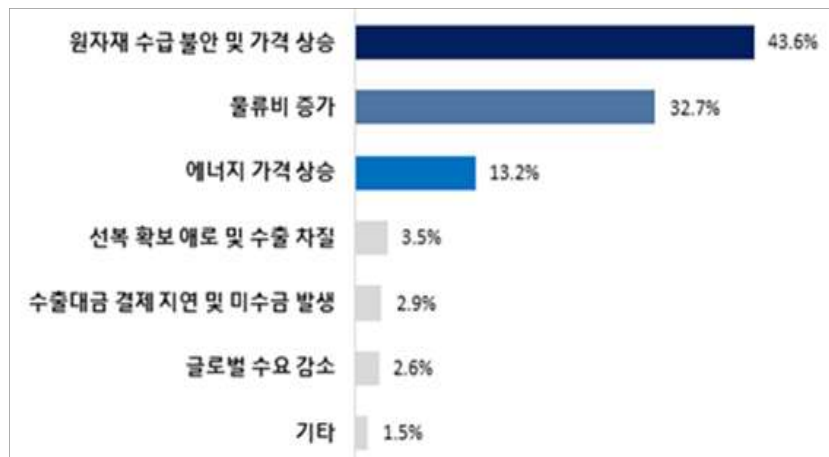


2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영향

가. 주요 피해

- 지역 수출기업 43.6%가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해 ‘원자재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’을 겪은 것으로 집계
 - 이외에도 ‘물류비 증가’(32.7%), ‘에너지 가격상승’(13.2%), ‘선복확보 애로 및 수출차질’(3.5%) 등의 순
 - 특히, 중동사태는 지역기업의 수익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가격 상승, 해상운임 상승 등 비용부담이 증가
 - DSCFI 지수 기준으론 중동전쟁 직전 1,333(2.27.) 수준에서 약 2개월 만에 1,875(4.24.)까지 40.7% 상승하여 지역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가시적으로 확인

〈지역기업 주요 피해 현황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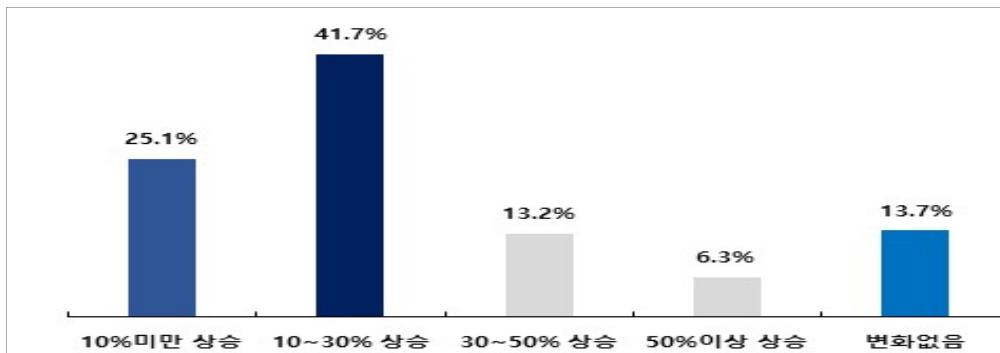


1)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

나. 원·부자재 가격 변동 및 재고수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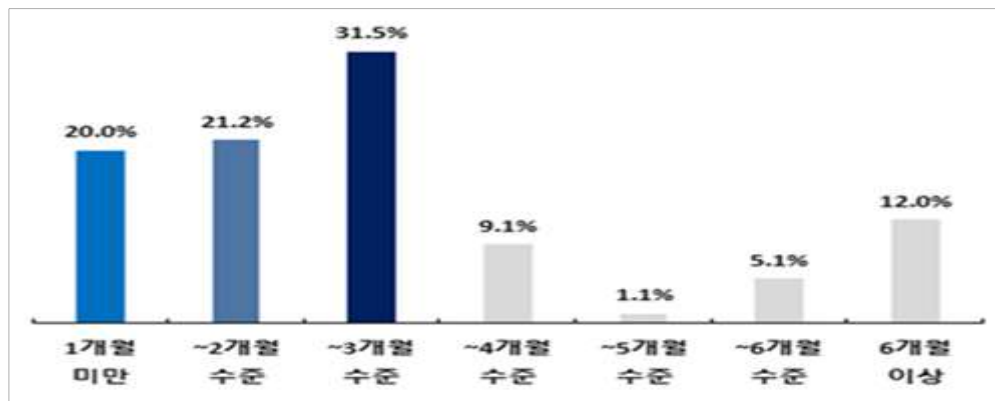
- 지역기업 86.3%가 중동사태로 인한 ‘원·부자재 가격 상승’을 체감
 - 세부적으로는 ‘10%미만 상승’(25.1%), ‘10~30% 상승’(41.7%), ‘30~50% 상승’(13.2%), ‘50%이상 상승’(6.3%) 순으로 집계
 - 특히, 10% 이상 가격 상승을 체감한 기업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

〈전년대비 원·부자재 가격 변동 현황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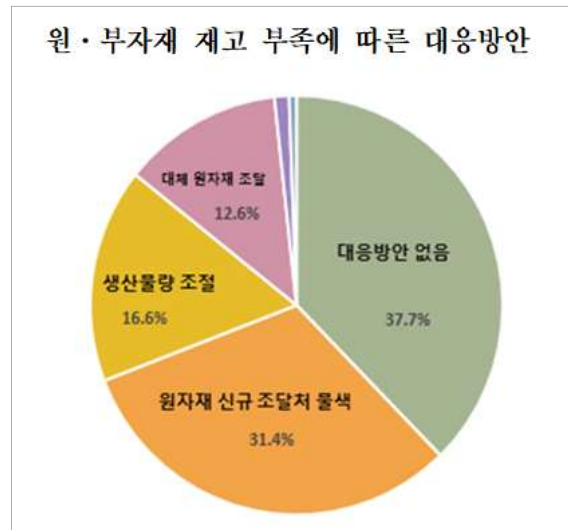
- 지역기업의 72.7%는 원·부자재 재고가 3개월 내 수준
 -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·부자재 수급 애로가 지속될 경우, 지역기업의 생산차질 및 납기지연 등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분석됨

〈원·부자재 재고 수준 현황〉



- 중동사태로 인한 재고부족에 대해 지역기업의 37.7%는 대응방안 마련이 부재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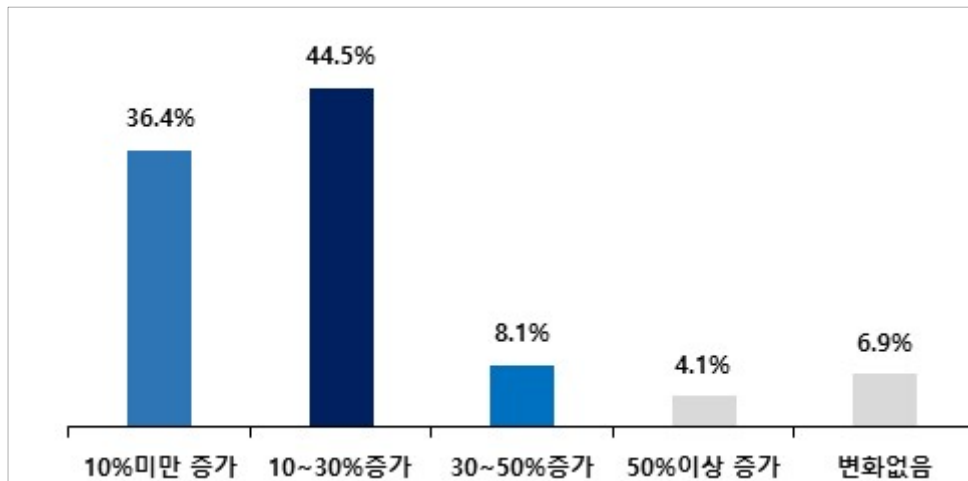
- 이외의 기업들은 ‘원자재 신규 조달처 물색’(31.4%), ‘생산물량 조절’(16.6%), ‘대체 원자재 조달’(12.6%) 등으로 대응중인 것으로 나타남



다. 물류비 변동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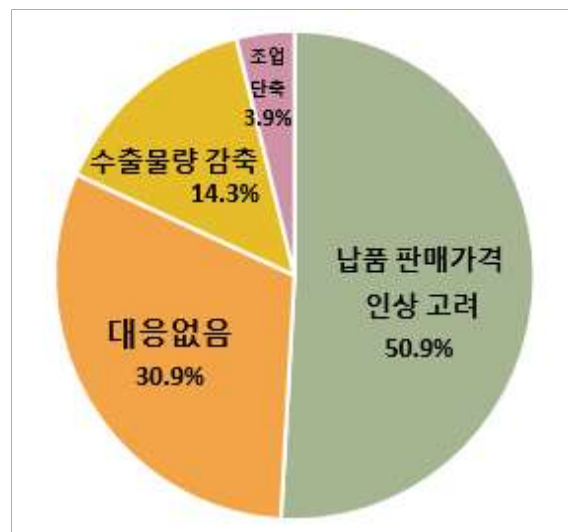
- 지역기업의 93.1%가 중동사태 이후 물류비 증가를 체감
 - 물류비 증가수준에 대해서는 ‘10% 미만 증가’(36.4%), ‘10~30% 증가’(44.5%), ‘30~50% 증가’(8.1%), ‘50%이상 증가’(4.1%) 로 집계
 - 중동사태로 인해 운항스케줄 지연, 긴급 해상운임 할증료부과, 보험비용 증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

<중동사태 이후 물류비 변동 현황>



- 지역기업 절반이 물류비 상승에 따라 ‘납품 판매가격 인상’(50.9%)을 대응방안으로 고려
 - 이외에도 ‘수출물량 감축’(14.3%), ‘조업단축’(3.9%) 등의 방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
 - 한편, ‘대응없음’이라 응답한 기업 또한 30.9%로 나타나면서 기업 협상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물류비 상승에 따른 부담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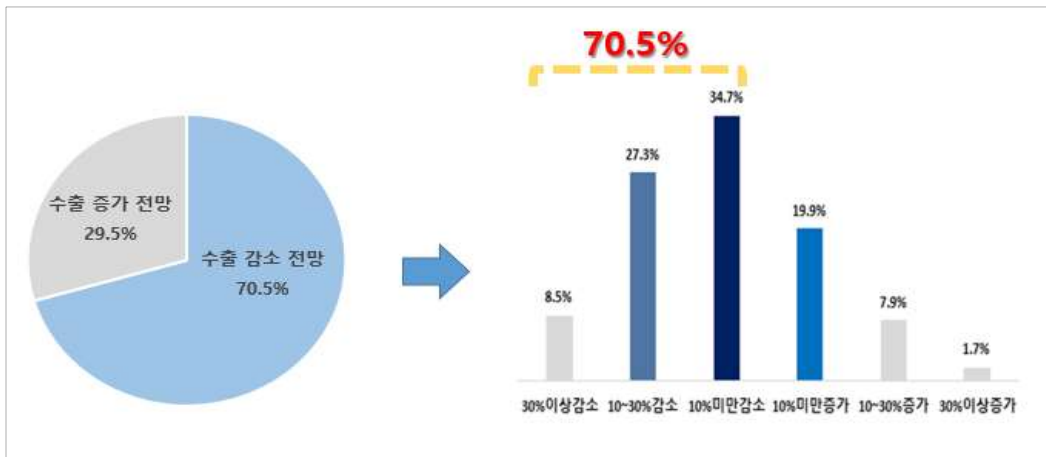
<물류비 상승에 따른 대응방안>



라. 올해 수출 전망

- 지역기업의 70.5%가 올해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
 - 세부적으로는 ‘30%이상 감소’(8.5%), ‘10~30%미만 감소’(27.3%), ‘10%미만 감소’(34.7%), ‘10%미만 증가’(19.9%), ‘10~30%미만 증가’(7.9%), ‘30%이상 증가’(1.7%) 순으로 집계
 - 지역기업 전반에서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, 원·부자재 수급차질 및 물류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를 전망

〈2026년 지역기업 수출 전망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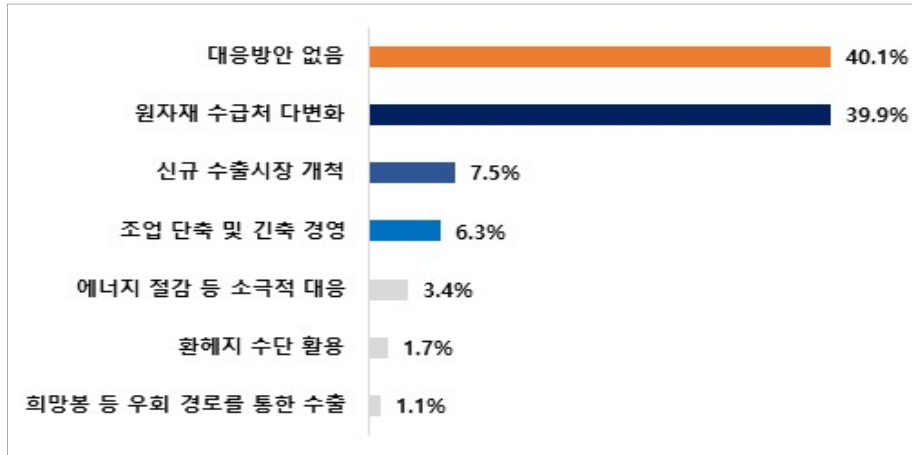


3 대응현황 및 요구 지원책

가. 지역기업 대응현황

- 지역기업의 40.1%가 ‘대응방안이 없다’고 응답
 - 이는 미국의 수출관세에 이어 중동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에 대해 지역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
 - 한편, 지역기업은 ‘원자재 수급처 다변화’(39.9%), ‘신규 수출시장 개척’(7.5%), ‘조업 단축 및 긴축 경영’(6.3%), ‘에너지 절감 등의 소극적 대응’(3.4%) 등의 방식으로 공급망 충격에 대응중인 것으로 나타남

〈기업 대응여부 및 자체 대응책 현황〉



나. 요구 지원책

- 지역기업은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지원책으로 ‘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’(25.2%)를 가장 많이 요구
 - 이어, ‘원자재 수급지원 신속시행’(22.3%), ‘긴급 수출금융·정책금융 우대금리 확대’(18.6%), ‘중동 수출입기업 관세·물류 긴급지원’(12.5%) 등의 순
 - 특히, 비용 부담 완화와 원자재 공급망 안정이 기업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

지역기업의 요구 지원책

